



## 미 증시, FOMC 경계심리 확산으로 하락 전환

### 미국 증시 리뷰

15 일(화) 미국 증시는 5 월 생산자물가,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주요 지표간 엇갈린 결과를 기록한 가운데, 6 월 FOMC 경계심리 확산, 성장주들의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등으로 하락 전환(다우 -0.3%, S&P500 -0.2%, 나스닥 -0.7%). 업종별로는 에너지(+2.1%), 산업재(+0.5%), 유틸리티(+0.4%) 등이 강세, 부동산(-1.0%), 기술(-0.6%), 커뮤니케이션(-0.5%)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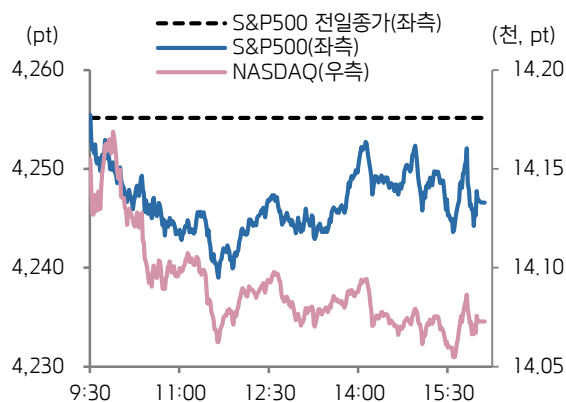
5 월 생산자물가는 6.6%(YoY)로 전월(6.2%) 및 예상치(6.3%)를 상회하며 약 11 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음을 재확인. 근원 생산자물가는 4.8%(YoY)로 전월(4.1%)에 비해 상승했으나, 예상치(4.8%)를 하회. 5 월 소매판매는 -1.3%(MoM)로 전월(-0.4%) 및 예상치(-0.6%)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 지난 3 월 이후 정부의 코로나 부양책 일환으로 지급했던 현금 지원금이 소진된 여파가 소매판매 둔화를 견인. 반면, 5 월 산업생산은 +0.8%(MoM)로 전월(+0.1%) 및 예상치(+0.6%)를 상회하면서 산업 경기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등 주요 실물 지표간 혼재된 모습을 보임.

### 미국 증시 평가

5 월 생산자물가의 급등(+6.6%, YoY)은 에너지(+46.6%), 중간재(+21.9%) 등 국제 상품가격 강세에서 기인했으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 그러나 최근 고점 대비 약 50% 하락한 목재 포함 구리, 곡물 등 주요 상품 가격들이 고점을 찍고 하락 전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추후 생산자 물라 급등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며, 전거래일 생산자 물가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이 격렬하지 않았던 배경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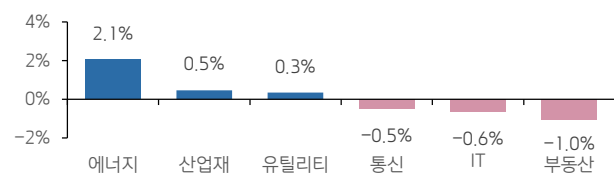
17 일(목) 한국 시간 새벽에 발표되는 6 월 FOMC 의 경우, 직접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다만, 점도표 상 미래 금리 전망치, 성명서 상 물가 및 경기 판단에 대한 문구 변화 등 테이퍼링 일정 및 속도와 같이 향후 연준의 정책 변화를 둘러싼 힌트가 등장할 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

S&P500 일중 차트(6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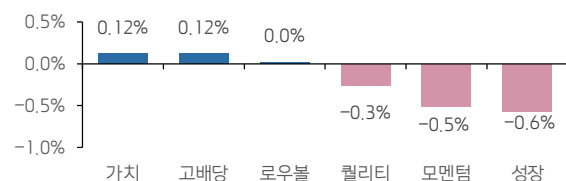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15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15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b>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b>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2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7.7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b>주요 체크 사항</b>	1. 6월 FOMC 경계심리에 따른 장중 미국 10년물 금리 변화 2. 중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이후 아시아 증시 간 주가 연동 가능성 3. 네이버와 카카오 간 시총 순위 경쟁 지속 가능성

###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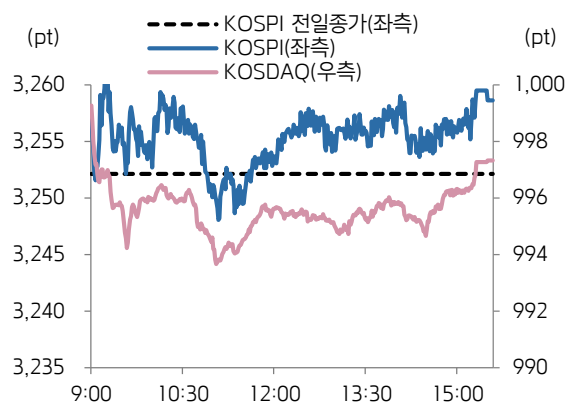
15 일(화) 코스피는 6월 FOMC 대기 심리 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장중 내내 지수 상단은 제한된 모습이었으나, 개별 업황 호전 기대감에서 기인한 전기전자, 화학, 인터넷 등 일부 대형 업종 강세에 힘입어 증가 기준으로 사상최고치(3,258.63pt)를 경신한 채로 마감(코스피 +0.2%, 코스닥-0.0%).

업종별로는 섬유유복(+1.7%), 증권(+1.4%), 화학(+0.8%) 등이 강세, 운수창고(-1.3%), 건설(-1.2%), 의약품(-0.9%) 등이 강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50 억원, 434 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992 억원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

###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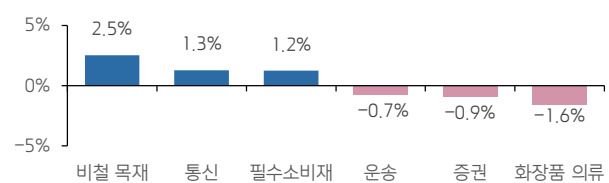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6월 FOMC 경계심리로 약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순환매 장세는 여전히 전개되고 있는 만큼 장중 미국 선물 시장 및 10년물 금리 변화, 중국의 5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지표 결과에 따라 업종간 엇갈린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한편, 코스피가 연이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시장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또 일정부분 소외감도 존재하고 있는 모습. 최근 주도 업종 및 테마가 등장하지 않은 가운데, 순환매도 불특정한 패턴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즉, 신고가 경신에 따른 전반적인 증시의 레벨 부담이 과거 신고가 경신 당시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수급상 매물대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6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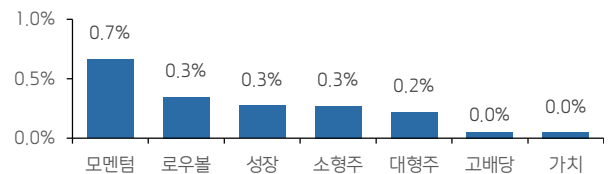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15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15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